

# 45 내가 너로 파숫군을 삼았으니

## Chapter

겔 3:16~21, 33:1~9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 98장 (주가 필요해)

### 오늘 배울



### 말씀

1. 파숫군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올바른 자세를 압니다.
2.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파숫군으로 세우셨음을 압니다.

### 마음 열기

“기상청은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에 대설경보 및 재해특보를 발효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과 강원 지역에는 곳에 따라 1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사고와 시설물 파손 등 재난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기상청은 오후 1시를 기해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 먼바다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를 발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모든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중단되고 고속버스도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도 임시휴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며, 직장의 조업도 중단되거나 단축될 예정입니다.”



만일 일기 예보가 항상 엉터리거나 늦게 예보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 말씀을 이해하기

파숫군은 백성들 중에서 택함을 받아 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성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었고 성벽 위에 밤낮 쉬지 않고 지키는 파숫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이 올까봐 언제나 망을 보아야 했고, 만일 이상한 움직임이나 낚새를 느끼면 즉각 성 안에 경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싸울 준비를 하게 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즉 이들은 그 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파숫군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자신뿐 아니라 성 안의 백성들 모두가 순식간에 멸망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숫군들은 성이 적에게 포위당하고 있을 경우 멀리 바라 보면서 혹시 어떤 구원군이 오지 않는지, 어떤 우군이 세력을 모아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는 성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속히 선포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박국과 같은 파숫군은 기도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파숫군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일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 만큼 파숫군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자기 위치를 지키고, 밤낮 쉬 없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숫군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위에 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분명한 나팔소리로 전하고 있습니까?

## 공과말씀정리

##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겔 33:7)

So you, 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therefore you shall hear a word from My mouth and warn them for Me. (Ez 33:7)



##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잠 24:11~12)

(사 21:6~9)

(고전 9:16~17)



##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이사야 62장 1절부터 9절을 읽고 다음에 대해 봅시다.

1.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 ( )가 빛 같이, ( )이 햇불같이 나타나며  
 - ( )이 시온의 공의를, ( )이 시온의 ( )을 보며  
 -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 )으로 일컬음이 되며  
 -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 )과 ( )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현재의 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4절과 8절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 시온은 ( )라고 칭해졌으며, 그 땅은 ( )가 되었고,  
 - 그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는 ( )와 ( )에게 약탈당했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온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파숫군'이었습니다. 파숫군이 해야 할 역할과 자세를 6~7절을 통해 정리해 봅시다.

- 내가... 파숫군을 세우고 = 나를 파숫군으로 세우신 분은 ( )이시라는 소명의식과  
 - 내가 너의 ( )위에... 세우고 = 주님께서 주신 위치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 그들로 종일 종야아 = 낮이나 ( ) 쉬지 말고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성실함과  
 - ( )않게 하였느니라 = 다가오는 위협이나 구원에 대해 크게 외쳐야 합니다.  
 - 너희 여호와로 ( )하는 자들아 =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하여  
 - ( )는 쉬지 말며, 그로 ( )하라 = 주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림으로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4. 교회는 원래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파숫군인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시대의 파숫군으로 세우셨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구합니다. 또한 파숫군으로서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해 달라고 구합니다.



# 우리들의 이야기

##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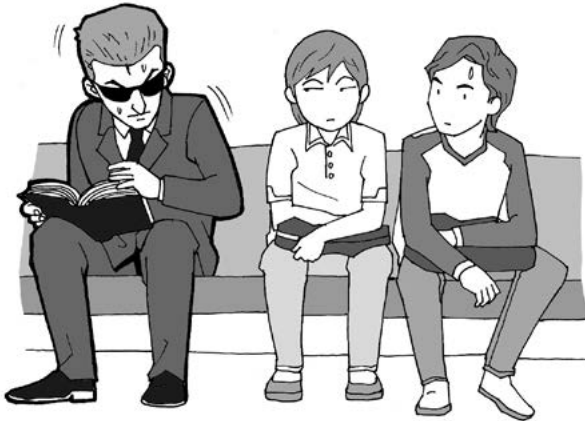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 007 신자

‘007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007은 국가 기관인 정보부에서 일하는 비밀요원이기에 평소에는 가장된 신분으로 행동하면서 그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007 신자’라는 말은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은밀한 신자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G. 스위팅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밀한 신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J. 설크박사의 ‘비밀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외침처럼 비밀을 지키는 일은 범죄가 될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죄가 됩니다.”





#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